

4

백제의 통치제도

우지-카바네(氏姓)와 베(部)

(1) 우지-카바네(氏姓)제도

우지(氏)는 조정에서 어떤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여, 거주지역 또는 직능을 표시하는 씨족명을 얻은 일족을 말한다. 카바네(姓)는 「우지」의 수장에게 주어지는 세습적인 칭호로서, 그들의 지위(씨족간 예서의 위계) 또는 직능을 나타낸다. KEJ(1983: 8, 131-137)는 킬레이가 쓴 항목에서 「우지-카바네」제도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씨성제도는] 서기 645년 대화 개신(大化改新)이 있기 전 한 세기 반 동안,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널리 시행된 조직 양식이다. 「우지」는 한개의 확대 가족(擴大家族) 단위로 간주된, 공통의 세습적 우지 이름을 가진 가구들의 결합 집단이었다. 이 단위 집단 안에는 우지 명칭에 추가해서, 세습 칭호 즉 「카바네」를 가진 한개 이상의 혈통이 존재했으며, 「카바네」는 우지의 수장이 되는 자격과 야마토 통치자의 조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 . . 「카바네」를 가진 「우지」의 수장에게는, 일반적으로 베(部, 초기에는 도모, 伴, 라고 불렀다)라고 부르는,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공동체 또는 집단을 다스

리는 권한이 위임되었다. . . . 이 「베」제도가 우지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킬레이는 다시 말한다: “「우지」는. . . 중앙의 권위가 감소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으면서도, 많은 엘리트 계급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을 쉽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당국이 전략적인 기술·기능을 전유(專有) 하면서 지방 수장들의 권력을 흡수하고, 그렇지 않았던들 손이 닿지 않았을 군사적 및 농업적 잠재력에 대한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¹

오오바야시(大林太良, 1985)에 의하면, 고대 일본의 「우지」는 혈족이 아닌자를 양자로 삼는식의 의사 유대(擬似紐帶)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야마토 정부를 구성하는 강력한 가문들은, 의사(擬似) 혈연적 유대를 만들어 내고, 아주 동질적은 아니지만 거대한 「우지」를 조직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체의 수장 및 지도자들을 그들의 지배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밀러(1976)는 씨족 칭호의 사용이, 아마도 4세기에 시작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7세기 말까지 25개의 씨족 칭호가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씨족 칭호의 상대적 위계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씨족의 선조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한다.

키더(KEJ: 3, 16)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야마토 지배자들은, 「베」 혹은 야마토 조정에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습적 직능 집단을 조직하는데, 「우지」의 수장들을 이용했다. 각 우지에게는 서로 다른 역할과 과업이 주어졌으며, 그들은 상대적인 신분과 직능을 표시하는 명예 칭호(카바네)를 수여 받았다. 오오바야시(1985)에 의하면, 일본에서 「우지」가 성숙하는 데 중요했던 요소는, 알타이 계통으로 부터 유래하는 새로운 혈연 관계를 소개하고, 부계(父系) 관념을 강화시킨, 알타이 문화가 대량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킬레이(KEJ: 8, 185)는, 베(部)와 도모(伴)가 하나의 제도로서 우지(氏)에 앞섰던 것이 틀림없으며, 우지의 바탕이 되는 「베」와 「도모」는 야마토 조정이 단순한 최고의 존재로부터, 의문의 여지없는 주권자의 존재로 전환해 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 할수 있었던 주요 수단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 남부를 향한 부여 및 고구려 문화의 침투와 발마추어 진행되었다. 이들 영향의 일본 진입에 관한 물질적인 증거는 적지 않다. 이를테면, 5세기 경의 고분(古墳)에서 발굴된 번쩍거리는 황금의 장신품들은, 알타이 유목민의 왕실 문화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도래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대 일본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신화와 의식(儀式)은, 이와 유사한 고구려 및 백제의 그것과 함께, 분명히 같은 사슬의 또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카(岡正雄, 오오바야시, 1985, 인용)는, 「우지」가 원래 인종적 물결을 타고 일본에 들어 온, 다시 말해서 “3세기 또는 4세기에 알타이 왕실 문화를 가지고” 일본에 들어온, 부계(父系)의 족외혼적(族外婚的)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노우에(1977)에 의하면, 「우지」라는 말은, 부계 집단을 가리키는 한국어의 「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이다.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29)는 흑치상지(黑齒常之, 서기 630-689년)라는 이름의 백제 장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서부(西部) 사람으로, 달솔(達率)의 직위를 가졌으며, 동시에 풍달군(風達郡)의 장(將)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기 660년 백제가 당군에 패망한후 소정방에 대항해서 성공적으로 저항운동을 벌렸으며, 결국은 당에 항복 했는데, 그후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저명한 당나라 장군이 되었다.” 1929년 낙양(洛陽) 지방에서 발견된 흑치상지(黑齒常之)와 그의 아들(黑齒俊)의 비명(碑銘)은, 백제가 「우지-카바네」와 동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 이 비명에는, 흑치(黑齒) 씨족이 원래 부여(扶餘) 성씨를 가진 백제의 왕족인데, 그 조상이 흑치(黑

²이 비명은 각각 서기 699년과 706년에 작성되었다 (이문기, 1991, 참조).

齒) 지방에 봉토(封土)를 받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흑치라는 씨족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비명에는 또 흑치 씨족의 지도자들이 대대로 달솔(達率) 계급을 전승했다고 적혀 있다 (이문기, 1991, 와 한국 고대 사회연구소, 1992, 참조).

(2) 카바네(姓) 칭호의 기원

바안스(1988: 29)는 말한다: “대표적인 [카바네] 계급 가운데 몇몇 이름은 한국으로 부터 유래하며, 아마도 체계적 계급제도인 「카바네」의 발상 및 그밖의 많은 혁신적 제도가, 모두 5세기 중엽에 함께 도입되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카바네」 계급을 가진 많은 「우지」 구성원 자체가 한국인의 후손들이었다.” 킬레이 (KEJ: 8, 136)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카바네」 칭호의 사용은,
정치적 관할권을 베(部)로 나누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5세기 말 백제로 부터 도입한 제도인 것이다.”

이노우에(1977)에 의하면, 「카바네」 칭호 “기미(支彌, 君)”는 멀리 떨어져 반 독립적 이면서 지방의 강력한 실권자인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미”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일본서기의 케이타이(繼體) 3년(서기 509년)조에 인용되어 있는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발견 된다는 것이다.³ 이노우에는 또, 야마토 조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방의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칭호인 “오미(臣)”는, 역시 백제본기를 인용한 일본서기의 긴메이(欽明)조에 나타난다고 말한다.⁴ 상급 시종(侍從) 집안[도모노 미야즈코(伴造)]의

³일본서기(NII: 7)는, “사신이 백제에 파견 되었다. 백제본기(百濟本記)에 실려 있는, 구라마치군(久羅麻致支彌)이 일본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⁴일본서기(NII: 7)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나솔(那率) 아망득문과 . . . 모노노베 나솔(物部那率) 기비(奇非)를 보내어 다음과 같은 서한을 천황에게 전했다: ‘그러므로 나(백제왕)는 일본부(日本府)를 소환하기 위해 사절을 보냈소.’

수장에게 수여된 칭호 “무라지(連)”는, 역시 백제본기를 인용한 일본서기(NII: 13)의 케이타이 9년조에, 모노노베노 지치노 무라지(物部至連)의 이름에 나타난다.⁴⁾ KEJ(1983: 8, 134)는 킬레이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고 있다:

“세습 신분”과 “세습 신분의 칭호”를 의미하는 「카바네」라는 표현의 사용은, 거의 분명히 한국, 특히 백제 왕국으로 부터의 문화적 차용의 결과이다. . . . 세습 명칭의 한 요소로서의 「카바네」는, 일본과 백제 양쪽에서 5세기 말부터 시작된다.”

“기미(君, 支彌)”와 같은 「카바네」 칭호는, 백제 칭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NII: 75)는, 여창(餘昌, 백제 성명왕의 아들 위덕왕)이, 서기 554년 신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신라군에 포위 당했으나, 당시 유능한 공사였던 쓰쿠시(筑紫)의 구니노 미야즈코(國造)가 빗발처럼 활을 쏘아, 여창과 그의 장군들이 셋길로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NII: 75)는 또, 여창이 그 공사에게 “구라니노 기미(鞍橋君)”라는 칭호를 수여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

카바네 칭호 “기미”는, 5세기와 6세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 왕족들이 분명히 다수 포함되어 있는, 「우지」수장들에게 주어졌다. 일본서기(NI: 406)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왕[무녕왕, 재위 501-523년]은 사아군(斯我君)을 파견하여, 공물과 서한을 전하면서 말했다: ‘전에 공물을 전달한 마나(麻那)는 백제 군주의

[백제본기에는 ‘위노피노 오미(烏胡毆臣)를 부르러 보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야마토 이쿠바노 오미일 것이다]. . . .”⁷⁾ 일본서기(NII: 49)는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시덕(施德) 마무(馬武), 시덕 고분옥, 시덕 사나노 차주(斯那次酒)를 임나에 보내어, 일본부와 임나의 간키(干岐) 등에게 다음과 같은 [백제왕의] 말을 전했다: ‘나는 기노오미(紀臣) 나술 미마사(彌麻沙), 나술 기연 「모노노베」노 무라지(物部連) 용기다(用奇多)를 보내어 천황을 배알케 했다.’”⁸⁾

친척이 아닙니다(非百濟國主之骨族). 그래서 삼가 사아(斯我)를 보내어 귀 조정에 봉사케 합니다.’ 그 [시카기미]는 후에 법사군(法師君)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야마토노 기미(倭君)의 시조가 되었다.”⁶

배튼(1986)에 의하면, 율령(律令)시대 이전에는 중앙 정부의 수반이 오오미(大臣)와 오오무라지(大連)였으며, 이들은 그 위상이 왕실 자체에 가까웠던 반자치적(半自治的) 「우지」와, 직능적 귀족을 각각 대표 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킬레이(KEJ: 8, 135)는, 대부분 오오미(大臣)계급의 고위 귀족들(귀족들의 지역적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이 옛 왕의 후예라고 주장했으며, 한편 무라지(連)계급의 대부분 고위 귀족들(귀족들의 직능적 우두머리들)은, 보통 그들의 조상을, 황족이 야마토(倭)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도와준 신(神)들로 더듬어 올라갔다고 한다.⁵

일상 정무(政務)는 벼(部) 또는 도모(伴)로 알려진 집단의 대표들이 감독했는데, 이들 「벼」 또는 「도모」라는 것은 무라지 계급의 「벼」지도자, 그리고 도모노 미야코(伴造)라고 부르는 하급 기능장 또는 조정의 하급 관리 아래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었다.⁶ 대화개신(大化改新)시대 이전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수단이 「벼」제도였다.⁷ 아오키(1974: 41)에 의하면, “호무다[오오진]는 농사

⁵킬레이는 “오미(臣)는 임금을 섬기는 부수장으로, 또 무라지(連)는 도모(伴)의 지도자로 간주 되었다”고 말한다. 에가미(江上, 1967)에 의하면, 그 이름에 “오미(臣)” 칭호가 들어 있는 귀족들은, 보통 각자 이름에 지방명을 포함시켜, 자기들이 지역적 귀족임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라지(連)” 칭호를 가진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직능 내용에서 명칭을 따으며, 전국을 통해 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제공했다고 한다. 즉 후자는 야마토 조정에서 황족을 섬기는 기능적 동업조합 같은 것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⁶배튼(1986)은 또 지적한다: 야마토 국가 아래서 지방 행정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구니(國)였으며, 많은 경우 이것들은 야마토에 의해 정복되었거나 동화(同化)된 반 자치적인 소 ‘왕국’에 해당했다. 과거의 지배자들은 구니노 미야코(國造)로서, 다시 말하여 지역의 소 수장으로서, 계속 각 지역들을 다스렸다. 고위 귀족들은 결코 “미야코”라는 칭호를 갖지 않았었다.

를 짓는 삼각주의 촌장들 가운데서 부하들을 뽑아가지고 「무라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분명히 「마을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한국어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이다.

(3) 씨족 이름 “모노노베(物部)”의 기원

에가미(江上波夫, 1964)에 의하면, 천손(天孫)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니니기를 수행해온 “오부신(五部神)”은, 황실에 직접 봉사하는 단체인 베(部)의 우두머리로서, 저마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또 모노노베(物部)가, 그밑에 5명의 미야쓰코(國造)와 25개의 아마 모노노베(天物部)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에가미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예컨대 5개의 집단(부) 혹은 거주지로 나누는 것 같이, 5배수 형태로 조직하는 전통이 발견된다는 오카(岡正熊)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또 고대 일본의 지배 계급이, 한국으로 부터 만주에 까지 퍼져있는 종족들의 사회와 공통되는 많은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시대의 일본지배 계급은 그 자체가 한국·만주 지방에 기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⁸

오미(臣)나 기미(君)와 같은 「카바네」 칭호뿐 아니라 “모노노베(物部)”와 같은 씨족 이름 역시 백제에서 유래한 것 같다. 우리는 일본서기에서, 직능을 표시하는 “모노노베”라는 씨족 이름이 백제 관리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컨

⁸킬레이(KEJ: 8, 134)는 지적한다: “토지와 곡물 창고를 관(官) 소유 미야케(屯倉)로 지정한 것은, 그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베(部)라고 호칭 하기는 했으나, 우지(氏) 또는 카바네(姓)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⁹에가미(1964)에 의하면, 야마토 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오도모노 무라지(大伴連)와 구메노 아타헤(久米直)의 조상들은, 천손(天孫)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군사적 협력자들 이었다. . . . 후에. . . 이들은 임금들 측근의 매우 강력한 군사적 가문이 되었으나, 그들이 남한(南韓)시대 이래 황족의 군사 협력자였으며, 일본 국가의 수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우리들로 하여금 부인케 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다.

대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은, [서기 543년에] 전부 나솔(前陪那率) 진모귀문. . . 과 「모노노베」 시덕(物部施德) 마기모를 보내어, 부남(扶南) 토산물과 노예 두 사람을 선물로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NII: 48).⁸⁷ 일본서기(NII: 49)는, 서기 544년에 백제왕(聖明)이 “기신 나솔(紀臣那率) 미마사, 나솔 기련, 「모노노베노 무라지」 나솔(物部連那率) 용기다(用奇多)를 보내어 천황을 빕게 했으며,” 또(NII: 52) 같은 해에 “백제는 나솔 아모득문과 「모노노베」 나솔(物部那率) 기비(奇非)를 보내어 천황에게 서한을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⁸⁸ 일본서기(NII: 72)는 서기 554년에 “백제가 상부 나솔(上部那率) 「모노노베노」오(物部烏)와 함께 하부 간솔(下部杆率) 삼귀 장군을 보내어 원군을 청했다”고 말한다.⁸⁹ 일본서기(NII: 73)는 또 백제 성왕(聖王)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 . 동방령(東方領) 「모노노베」 막기무 무라지(物部莫奇武連)로 하여금 그 지역의 군대를 지휘하여 [신라의] 함산성(函山城)을 공략케 했다.”⁹⁰ 애스턴(NII: 73n)은 간단히, 이것들은 “일본 칭호들과 한국 이름들의 기묘한 혼합”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4) 백제에서 건너 온 베(部)제도와 숙련 기술자들

도모(伴) 또는 베(部)라는 집단들은, 5세기부터 서기 645년의 대화개신(大化改新) 전까지, 야마토 조정을 받들어 온 세습적인 직능 집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노우에(井上, 1977)에 의하면, 일본에서 “도모노 미야코·도모·도모베(伴造·伴·伴部) 제도가 완전히 발달한 것은 “백제로 부터 이주해온 기술자들이” 도모(伴)로 조직되어 조정의 수종(隨從)으로 고용된” 이후부터 라는것이다.

킬레이(KEJ: 8, 134)에 의하면, “미야쯔코를 카바네(姓)로 가진 도모 우두머리의 절반은, 그들이 관장했던 공식적 베(部)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이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이노우에(1977)는, 내장(內藏)이 한국에서 온 물품을 저장하기 위해 리츄우(履中) 치세에 세워졌으며, 오오진(應神) 치세 초기에 이주해 왔다는 두 씨족인,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東漢直)와 가와치노 후미노 오비토(西文首)

가 그 내장의 관리를 맡았다”고 말한다. 고사기(KP: 284-285)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 구다라(백제)의 초고왕(近肖古王)이
 숫말 한 필과 암말 한필을 선사했으며,
 아지키시(阿知吉師)를 딸려 보냈다.
 이 아지키시는 아지키노 후히토(阿直史)의 시조이다.
 그리고. . . 그(근초고왕)는 와니키시라는 사람을 보냈다.
 이 와니키시는 후미노 오비토(文首)의 시조이다.
 그는 또 두 사람의 기술자,
 즉 다쿠소라는 가라(韓)의 대장장이 한 사람과,
 사이소라는 구레(吳)의 직공(織工) 한 사람을 보내 왔다.
 다시 하타노 미야코(秦造)의 시조와,
 아야노(아타헤)(漢直)의 시조가 이주해 왔다. . . .”^{2, 3, 4} (14)

필립피(KP: 561)는 지적한다: 하타(秦)씨족은 “대륙에서 이주해 온 굉장히 큰 가문이었으며, 오오진(應神)치세에 건너 왔다는 미야쓰코(國造)가 다스렸다. 일본서기는 이 미야쓰코의 선조를 유즈키노 기미(弓月君)라고 밝히고 있다.”⁹ 일본서기(NI: 261-264)는, 오오진 16년(서기 405)에 “유즈키노 기미(신찬성씨록에 의하면 融通王)가. . . 120개 현의 사람들을 데리고, 백제로 부터 건너왔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KEJ(1988: 3, 111)는 윌리엄 카아터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실고 있다:

“[하타 집안은] 대륙 이민의 후손으로서,
 고대 일본의 영향력 있는 가문 또는 씨족이었다.
 이 집안의 전설에 의하면,
 자기네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서기 400년경 한국의 백제 나라에서 건너온

⁹신찬성씨록(佐伯有清: 279)은 궁월군(弓月君)이 오오진 14년에 건너왔다고 말하면서, 이 유즈키노 기미가 중국 진시황의 후예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다.

유즈키노 기미(弓月君)의 후예들이라는 것이다. . .

옛 기록들에 의하면, 하타 씨족은 토지개발, 정부 창고의 관리와 외교 뿐 아니라, 양잠(養蠶), 직조(織造), 야금(冶金) 등 [그들이 일본에 들어 오는 것을 도왔을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 5세기 말까지 하타 씨족 사람들은 미야쓰코(國造)라는 신분의 칭호(카바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칭호는 7세기에 이미키(忌寸)로 바뀐다. 하타 씨족의 분파는 일본의 여러 지방으로 퍼져 나갔지만, 그들의 주요 정착지는 교토(京都) 분지, 특히 가도노(葛野)지방 이었다. 섭정(攝政) 쇼오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친구인 하타노 카와카쓰(秦河勝)는, 7세기 초에 고오류우지(廣隆寺)를 건립했다. . . 8세기 말, 하타 집안은 새 수도 헤이안쿄(平安京)의 건설을 위해 재정원조를 제공했다.”¹⁰

일본서기(NI: 365)는 또 기록하고 있다: “천황[유유라쿠]은 [하타노 미야쓰코 사케(秦造酒)를] 총애했기 때문에, 하타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 하타노 사케 공(秦公酒)에게 맡겼다. 그러자 사케 공은 180종류의 뛰어난 벼(部) 장인들을 거느리고, 산업 조세(庸調)로서 궁정에 가득 찰만큼 많은 고급 비단을 바쳤다. 그래서 [서기 471년에] 그에게 우즈마사(寓豆麻佐)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 . [유유라쿠 천황은] 다시 [서기 472년에] 하타 집안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분산시켜, 산업 조세를 바치게 했다.”¹¹ <15> 일본서기(N I

¹⁰아베 다케시(KEJ: 3, 121)는 지적하고 있다: “서기 784년에 간무(桓武, 재위 781-806년)는, 정부 관료인 후지와라(藤原) 일족의 지지와 한반도에서 초기에 이주해 온 하타(秦) 집안이 제공한 경제력의 도움으로, 조정의 위치를 나라(奈良)에서 나가오카쿄(長岡京)로 옮겼다. . . 그러나. . . 수도의 건설이 늦어 지더니 마침내 중단되어 버렸다. 서기 793년. . . 천황은. . . 나가오카쿄와 마찬가지로 야마시로노 구니(山城國)에 있는 우다촌(코오토오)에 새 수도[의 건설]을 명령했는데, 이 우다 촌은 하타 일족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곳이었다.”

¹¹이 기록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NI: 364): “하타 집안은 흩어졌다. 오미(臣)와 무라지(連)는 하타씨족에게 멋대로 봉사를 강요했으며, 하타노 미야코(秦造)의 통솔을 허용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타노 미야코 사케(秦造酒)는 통분

293)는 주군(酒君)을, 닌토쿠(仁德) 치세 때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왕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애스턴(NI: 360n)은, 이 하타노 사케 공(秦酒公)이 “주군(酒君)” 혹은 그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노우에(1977)는 유우라쿠 치세때 여러 지방 씨족들이 바치는 공물을 저장하기 위해 큰 창고(大藏)가 세워지고, 야마토노 아야(東漢)와 가하치노 아야(西漢)가 그 관리에 참여했으나, “창고 관리의 주 책임은, 귀화한 도모노 미야코(伴造)인, 하타 씨족이 맡게 되었다”고 말한다.¹²

일본서기(NII: 36)는, 긴메이(欽明, 재위 531-년)가 어렸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만일 그대가 하타노 오오쓰치 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대는 커서 틀림없이 이 왕국을 갖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36-37)에 의하면, 긴메이는 야마시로(山背, 山城) 지방에서 그 하타노 오오쓰치를 발견하여, 자신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했으며, 후에 즉위하자 그를 대장성(大藏省)에 임명했다고 한다.¹³ <17> 하타(波多, 波陀)는 중국 진(秦) 나라의 일본 가나 표기지만, 직기 또는 직물이라는 뜻도 있다. 애스턴(NI: 265n)은, “일본에 온 한국[백제] 이민들 가운데는 수많은 직공(織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을 느껴, 천황에게 호소를 했다. . .”

¹²이노우에(1977)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쿠라노 아타헤(大藏直, 후일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倭漢直) 계통에 속하는 이미키(忌寸), 가와치노 후미노 오비토(河内文首) 계통의 우치쓰 쿠라노 아타이(內藏直), 하타노 쿠라노 미야코(秦藏造)와 같은 우지(氏)와 카바네(姓)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야마토 조정은 (1)두 씨족, 즉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와 가와치노 후미노 오비토의 어떤 분파를. . . 새로 설치된 두 창고의 세습적인 재무 기록 관리자로 임명하고, (2)하타 씨족의 한 분파에게 이 창고의 관리를 맡겼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 . 전자의 집단은 후히토(史), 후자는 구라히토(藏人)라고 불렀다. . .”

¹³일본서기(NII: 39)는, 하타(秦) 집안 사람들이 모두 7,053호였는데, 하타노 도모노 미야코(秦伴造)가 오오쿠라(大藏)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8>}

¹⁴오다 다케오(KEJ: 4, 3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쿄오토(京都) 단층(斷層) 분

일본서기(NI: 264-265)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오오진(應神) 20년 [서기 409년?]에

“야마토노 아야토 아타헤(倭漢直)의 조상인
아찌노 오미(阿知使主,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阿知王)와
아들 쓰가노 오미(都加使主)는,
17개 현의 자기사람들을 거느리고 일본에 건너 왔다.”⁹⁾

KEJ(1983: 1. 125)는, 윌리엄 카아터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고 있다: “[아야 집안은] 영향력이 큰, 거대한 이민 집단의 하나였다. . . . 그들 가운데서도 야마토 지역(지금의 나라현), 특히 아스카(飛鳥, 明日香) 지방에 정착한 야마토노 아야(倭漢)가 특히 두드러진 존재였다. 원 집단의 대부분은, 아마도 서기 400년께 일본에 도착 했던것 같은데, 아치노 오미(阿知使主)가 이들의 지도자였다. . . . 야마토노 아야의 여러 분파들이, 7세기 중엽에 소가(蘇我) 집안과 밀접하게 결합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외교, 정치, 군사, 궁정의식, 불교옹호 등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部) 기구를 감독하는 직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수도 지방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역시 한국에서 건너온 하타(秦) 집안보다는, 지리적으로 덜 분산되어 있었다.”

고사기(KP: 324-325)의 기록에 의하면 리츄우(履中)가 한번은 공식 만찬을 베풀고, 좋은 술을 양껏 취하게 즐긴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그의 동생은. . . 천황을 살해할 생각으로 대전(大殿)에 불을 질렀다. 이때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의 조상인 아치노 아타헤(阿知直)가 남몰래 그를 안고 나와, 말에 태워서 야마토(倭)로 데리고 갔다.”¹⁰⁾ 고사기는 또, 리츄우가 “아치노 아타헤를

지에는 6세기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주해 온 하타(秦) 일족이 정착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양잠을 잘하고 비단 짜기에 능했으며, 견직 제품을 팔아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서기 603년, 하타 집안의 씨족 사찰인 고오류우지(廣隆寺)가, 큐오토 분지 서쪽의 우즈마사(太秦)에 세워졌다.”

장관(藏官)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그에게 토지를 내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10> 이 집안은 같은 이름의 가하치노 아야(西漢)와 구별하기 위해, 야마토노 아야(東漢)라고 불렀다.¹⁶ 아야는 중국의 한(漢) 나라를 지칭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나」 표기이다. 애스턴(NI: 265)은, “이 글자를 왜 「아야」라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¹⁷

일본서기(NI: 350)에 의하면, 유우라쿠(雄略) 치세때 백제에서 새로 일본에 도착한 많은 숙련 기술자들은,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 다시 말해서 오오진 때 아찌노 오미(阿知使主)와 아들 쓰가노 오미(都加使主)의 인솔 아래 일본으로 먼저 건너 온 씨족의 감독을 받았다. 유우라쿠 시대에 일본에 건너온 이들 백제 숙련 장인들을, 일본서기(NI: 349)에서는 이마키(今來) 숙련 장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마키」라는 표현은, 오오진 때 일본으로 이주해 온 야마토노 아야(倭漢)와 후에 새로 건너온 아야(新漢)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애스턴(NI: 350n)은 말한다:

“아야 또는 한(漢)은,
이제 세가지 분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동한(東漢) 또는 야마토아야(倭漢),
서한(西漢) 또는 가하치아야(河內漢),
신한(新漢) 또는 이마키 아야(今來漢)가 그것인데. . .

¹⁵애스턴(NI: 309n)은 「코고주이」라는 책으로 부터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신물(神物)을 저장하는 창고 이외에 내장부(內藏部)가 설립 되었으며, 여기에는 공공 재산이 분류, 보관되었다. 아치노 오미(阿知使主)와 백제에서 온 학자 왕인(王仁)이 그 출납의 기록을 맡았다.” 왕인은 서기 405년에 일본으로 왔었다.

¹⁶일본서기(NI: 35)는, 유우라쿠(雄略) 치세(서기 463년)에 간인치리(歡因知利)라는 서 아야(西漢)의 숙련된 장인이,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구해오기 위해 백제로 파견되었다고 말한다. <11>

¹⁷일본서기(NI: 365)는 서기 472년에 유우라쿠가 “아야베(漢部)를 집합시켜, 그들의 도모노 미야코(伴造)를 지명하고, 그에게 아타헤(直)의 칭호를 주었다. 어떤책에는, ‘아야노 오미(漢使主)에게 아타헤의 칭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2>

모두 한국(백제)에서 온 숙련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⁸

서기 684년에 텐무(天武)는, 8계급 씨족 칭호 [야쿠사노 카바네, 八色姓] 제도를 실시했다. 즉, 마히토(真人), 아손(朝臣), 스쿠네(宿尼), 이미키(忌寸), 미치노시(道師), 오미(臣), 무라지(連), 이나기(稻置)가 그것이다. 키더(KEJ: 3. 163)는 지적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두개의 최고 칭호 마히토(真人)와 아손(朝臣)은, 주로 황족과 가장 가까운 혈연 집단에게 주어졌다. 셋째 계급인 스쿠네는, 아마테라스의 직계는 아니지만, 황족을 위해 값진 봉사를 한, 주요 천신의 후예라는 우지(氏)들이었다. 이미키(忌寸)와 미치노시(道師)는, 황족과 무슨 특별한 관계를 주장할수 없는 존재였다. 이 모든 새로운 계급이 상부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오미(臣) 및 무라지(連)를 가진 우지는 계급구조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애스턴(NII: 365n)에 의하면, 넷째 계급인 이미키(忌寸)는 “특별히 한국(백제)에서 온 이민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마키(今來) 혹은 신참자(新來)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카아터(KEJ: 3. 111)가 지적했듯이, 이마키 칭호는 하타(秦)씨족 에게도 주어진 것 같다.¹⁹

일본서기(NII: 69)는 기록하고 있다: 서기 533년에 “천황의 명령으로 소가노 오오 오미(蘇我大臣) 이나메노 스쿠네(稻目)는, 오신니

¹⁸일본서기(NI: 334)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유와 왕자는 아나호를 살해하고, 가쓰라키(葛城)에 있는 오오 오미 쓰부라(圓大臣)의 집으로 도망쳤다. 쓰부라(NI: 335)는 마유와 왕자가 자기 집에 도피토록 해준 것을 용서해 달라고 유우라쿠에게 간청했다. 그는 그들(마유와 뿐 아니라 자기)의 진 죄의 대가로 자기 딸 가라히메(韓媛)와 가쓰라키에 있는 일곱채의 건물(곡물 창고)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우라쿠는 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들 모두를 태워 죽였다. 일본서기(NI: 336-337)는 그들의 유골은 함께 거두어져서, “이마키노 아야(新漢)”에 있는 쓰키토의 남쪽 언덕에 묻어지고, 가라히메는 천황의 수석 측실(元妃)에 임명 되었으며, 그녀가 세이네이(淸寧)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¹⁹히라노(平野邦雄)는 “이미키 또는 후히토(史人)라는 칭호는, 흔히 대륙으로 부터 건너온 계통의 집단에 주어졌다”고 간단히 말하고 있다.

(王辰爾, 한국계라고 애스턴은 지적한다)에게 해상운송에 대한 세금 출납을 맡겼다. 이윽고 그는 선박들의 우두머리로 임명되었으며, 후나노 후미비토(船史)라는 칭호(姓)가 주어졌다. 그는 지금의 후나노 무라지(船連, 해운담당 장관)의 시조이다.”

일본서기(NII: 78-79)는 또 기록한다: “소가노 오오 오미 이나메노 스쿠네와 그밖의 사람들은, [서기 556년] 야마토(倭)의 다케치군(高市郡)에 파견되어, 한국인 [일본서기는 이 한국인이 백제 사람이라고 말한다]의 오오무사 미야케(屯倉)를 만들고, 고구려인의 고무사 미야케를 만들었다.”^{<20>}

일본서기(NII: 91)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572년 비다쓰(敏達)는 모든 후비토(史)들을 불러 모아, 고구려 사절이 가지고 온 서한을 읽게 했으나, 사흘이 되도록 그들중 아무도 그 서한을 읽어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후나노 후비토(船史, 선박 기록관)의 창시자인 [한국 계통의] 오신니가 읽을 수 있었다. . . . 그리하여 천황과 오오 오미[소가노 우마코, 蘇我馬子]는 함께 오신니를 칭찬했다. . . 그 후, 동(야마토)과 서(가하치)의 후비토들에게 다음과 같은 칙령이 내려졌다: ‘그대들이 수업하는 학업이 어찌 이렇듯 이룩한 것이 없는고? 그대들이 수요는 많으나, 신니(辰爾)와 겨룰 자가 없도다.’. . .” 일본서기(NII: 94)는 계속한다: “천황의 명령으로 쓰노 후비토(津史, 항만 기록관)의 칭호가 후나노 후비토(船史) 오신니의 동생 우시(牛)에게 주어졌다.”^{<21>}

일본서기(NII: 199-200)는, 서기 645년에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 히라후(比羅夫)가 (神道)신에 바칠 공물을 징수하기 위해. . . 오히리(尾張)와 고모토에 파견되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NII: 228)는 또 기록한다: “서기 647년에 다이산[大山, 일곱번째 높은 계급] 직위의 기술자인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 아라타이노 히라후(荒田井比羅夫)가, 나니와(難波)에 이르는 수로를 잘 못 파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책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천황(孝德)은 그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내가 슬기롭지 못하게도 히라후의 그릇된 말에 귀

를 기울여, 이 아무짝에도 쓸때 없는 수로를 뚫다. 잘못은 바로 나에게 있노라.’. . .” 서기 650년,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 아가타(縣)가. . . 아키지방 파견되어 두 척의 백제선(百濟船)을 건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NII: 240). 일본서기(NII: 355)는, 서기 682년 “이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에게 무라지(連)의 칭호가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22>}

(5) 백제의 통치제도: 베(部)의 기원

베(部)는 토지의 경작, 공예품이나 철제 무기의 생산, 회계처리 같은 특수 서비스를 야마토 조정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 백제의 방식을 따라, 백제인들로 최초로 구성된 서비스 집단이었다. 이들 도모 베(伴部)의 지도자들은, 야마토 조정의 관료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들 조직의 창설은 분명히 야마토 지배자들 한테로 세력을 집중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노우에(1977)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에 봉사하는 기술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베(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도모(伴) 이민들의 고국인 백제 조정의
12부(部)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이다. 또 “야마토 조정은 이 한국(백제)의 제도를 본받아, 새로 귀화한 [백제] 기술자들의 직능 집단(도모)에 베(部)라는 표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그들은 직능을 표현하기 위해, 아마베노 무라지와 모노노베노 무라지(物部連)와 같이, 도모노 미야코(伴造)에게 새로 주어진 우지(氏) 명칭에도 이것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역시 아마베나 모노노베의 이름으로 알려진, 도모노 미야코(직능 집단의 우두머리)의 감독을 받는, 지방 노동자 공동체(部民)에게도 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의 백제편을 보면, 백제는 궁중 직능인으로서 조정을 위해 일하는 12부(部)와, 정부 각부서를 담당하는 10부 제도를 사용 했다고 한다. 전자의 12개 부에는 곡부(穀部,

곡물담당 벼), 육부(肉部, 육류 또는 푸주의 벼), 내략부(內掠部, 내부의 저장 또는 창고 관리의 벼), 외략부(外掠部, 외부 저장의 벼), 마부(馬部, 말의 벼), 도부(刀部, 칼 대장장이의 벼), 약부(藥部, 약의 벼), 목부(木部, 목공의 벼), 법부(法部, 법의 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자의 10개 부에는 사군부(司軍部, 군사담당 벼), 사도부(司徒部, 교육담당 벼), 사공부(司空部, 토목담당 벼), 사구부(司寇部, 재판담당 벼), 점구부(點口部, 호적담당 벼), 객부(客部, 외교담당 벼), 주부(綱部, 재무 또는 세무담당 벼) 등이 포함되어 있다.²³⁾ 킬레이(KEJ: 8, 132)는 말한다:

“이 제도[벼]의 발전은 한국의 사례,
특히 백제의 사례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 . .
뿐만 아니라 벼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인 서기들에 의해
일본으로 도입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

킬레이(KEJ: 8, 133)는 또 “역사가 오래된 한국의 왕국들과의 광범한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발전한 야마토 왜(大和倭) 정부는, 임금의 가사를 담당하는 내부 조정과, 일반 정무를 담당하는 외부 조정을 분명하게 구분 했으며, 이 두 조정은 각기 자체의 재무 부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백제의 이 여러 가지 부와 야마토 조정의 벼(部)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야마토 조정의 「벼」에는, 야마베(山部, 밤, 대나무, 덩굴과 같은 산림 생산물의 수집), 임베(忌部, 종교 의식의 관장), 하지베(土師部, 토기와 土偶의 제작), 가누치베(鍛冶部, 철제 무기의 생산), 니시고리베(錦織部, 견직물의 직조), 기누누이베(衣縫部, 의복의 제조), 우마카이베(馬飼部, 말의 사육과 사료의 생산), 구라쓰쿠리베(鞍造部, 안장과 다른 설비의 제작), 도네리베(舍人部, 잡동사니 사무와 치안 유지), 가시와데베(膳部, 왕실의 주방 관리), 사헤키베(佐伯部, 군대와 병무관리) 등이 있었다.²⁰⁾

히라노(KEJ: 1, 147)에 의하면, “「벼」제도는 원시 일본 국가의

기본적 사회 정치 구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정점에는 야마토 주권자가 있었고, 그는 강력한 우지(氏) 수장들의 충성을 확보했으며, 그 아래에는 「베」라고 하는 많은 서비스 집단이 있어서, 노동과 물품을 공급했다. . . . 이렇듯 고대 일본인들은, 지배적인 「우지」계층의 의해서 유지된 위계 질서 속에 조직화되어 있었다. 좀더 중앙 집권적인 국가조직이 확립된 것은. . . . 겨우 대화개신(大化改新) 이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킬레이(KEJ. 8. 136)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의 구조는 “왕실 또는 궁중조직과, 이른바 외부 조정(朝廷)이라는 사실상의 국가 정부를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더 세련되었는데, 오미(臣)나 무라지(連) 계급과 같은 고관들은 계속 양쪽 모두에서 활동 했으나, 미야코(造)와 같은 하위 카바네(姓) 보유자는 어느 한쪽에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백제 제도로 부터의 또 하나의 차용인 이 구분 방법은, 국가 행정에 있어서 더 순수한 정치적 관청이 발전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 . .” 는 것이다.

라이사워(193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세기, 6세기, 7세기 초 한국이민의 대량 유입은 씨족제도를 해체시키고, 황족에게 유능하고 유식한 관리와 값진 숙련 기술자 집단을 공급해 주었다. 그 결과 황족의 직접 지배를 받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황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두뇌와 능력의 양이 다른 어느 씨족보다도 월등히 많아졌다. 그리하여 황족은 지방의 군소 씨족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 권위를 과시할수 있게 된 것이다.”

샌섬(1963: 37)에 의하면, 황족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새로운 집단을 창설하고, 충성을 기대할수 있는 이들 주요 집단의 사람들을 높은 직위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세력을 정력적으로 확대 했다고 한다. 샌섬(1963: 38-39)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²⁰킬레이(KEJ. 8. 133)는 지적한다: “정부의 마굿간에 고용된 ‘말 사육 담당’의 우마카이베(馬伺部)는, 야마토 지역에 있는 몇개의 특별히 지정된 (백제)이민 사회에서 선발되었다.”

“처음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서기 40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으로 부터 건너오기 시작한 피난민들 가운데서 모집할수 밖에 없었다. . . 이 중요한 이주 자들은 5세기와 6세기에도 계속 도착했는데, 이들은 보통 왕의 직할지에 정착하여, 그들 자신의 지도자 아래, 집단을 형성했다. . . [그 지도자들 에게는] 높은 신분의 귀족 계급과 칭호가 주어진 것이다. . . 6세기까지 그들은 확고히 뿌리를 내렸으며, 농업 노동자 대중을 제외한다면, 일본 국민의 구성에 있어서 의심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샌섬(1963: 39)은 결론 짓는다: “문명 생활의 발전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불가결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설령 어떤 종류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5세기 이전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본토의 위대한 문화의 대표자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6) 야마토 조정에서의 베(部)의 또다른 역할

백제 숙련 기술자들의 씨족 중에서도, 야마토의 지배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가 가장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⁹⁾ 다음 이야기는 그 실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서기(NI: 302)는, 닌토쿠(仁德)가 타계하자 왕자 한명이 리츄우(履中)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헤구리노 쓰카, 모노노베노 오마에, 그리고 아야노 아타헤(漢直)의 선조 아찌노 오미(阿知使主), 세사람이 이것을 알아채리고 태자(리츄우)에게 알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일본서기(NI: 369)에 의하면, 유우라쿠(雄略)는 서기 479년에 죽으면서 “오토모노 무로야노 오오무라지(大伴室屋大連)와 야마토 아야노 쓰카노 아타헤에게 후사를 맡겼다”고 한다. 유우라쿠가 사망하자, 호시카와 왕자가 천황 자리에 오를 생각으로 대장(大藏)을 차지하고, 국가 자금을 멋대로 써 버렸다. 일본서기(NI: 374)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오토모노 무로야는 야마토 아야노 쓰카에게 말했다: ‘오오하쯔세(大迫瀨) 천황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분부를 시행할 때가 왔다. . .

. [우리는] 황태자 (淸寧)를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대장(大藏)을 포위하고 호시카와 왕자를 볼 태워 죽였다.”²⁵⁾

일본서기(NI: 111-112)에 의하면, 우지-카바네(氏姓)제도는, 진무(神武)가 하야스이 문(速吸之門)에서, 야마토노 아타헤(倭直部)의 시조에게 시히네쓰히코(稚根津彦, 시히 뿌리의 왕자)라는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시작 되었다는데, 그는 진무의 동방 원정 때 해군의 길 안내를 했다고(海道者) 기록되어 있다.²¹⁾ 야마토노 아타헤(倭直) 씨족 역시,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가 그렇듯이, 근본이 백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추정에 대해 상황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오오진(應神)이 사망하자, 왕자 한 사람이, 본래 산직이의 땅(山守地)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마토의 국유전답(倭屯田)을 차지하려고 했다. 일본서기(NI: 273-274)는 말하기를: 그래서 닌토쿠(仁德)는 “야마토노 아타헤(倭直)의 선조 마로(麻呂)에게 물었다: ‘야마토의 국유 전답이 본래 산직이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 [마로]는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만, 제동생 아고코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아고코는 한국(韓國)에 파견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 . 그래서 어우가 급거 한국에 파견되어 즉시 아고코를 데리고 돌아왔다. . . [아고코]는, 야마토의 국유 전답(屯田)은 언제나 통치 군주의 전답 이어야 하며, 통치 군주가 아닌 자는 비록 천황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차지할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22) <27>} 이 기록 역시 초기 야마토 국가에 있어서의 야마토노

²¹⁾일본서기(NI: 111-112)는 기록한다: “. . . 진무(神武)가 하야스이 문(速吸門)에 도착하자, 한 어부가 조그만 배를 타고 나타났다. . . 천황이. . . 그에게 물었다: ‘네가 나를 안내할 수 있느냐?’ . . . 그는 뱃길 안내자로 지명되었다. 그에게 특별히 성(姓)이 주어져서, 시히네쓰히코라 불리었다. 그가 야마토노 아타헤의 시조이다. 항해를 계속한 그들은 쓰쿠시 땅의 오카항구에 도착했다.”²⁶⁾

²²⁾일본서기(NI: 303-304)는 다시 기록하고 있다: “야마토노 아타헤 아고코는 자기의 누이동생 히노히메 [태양의 공주]를 천황에게 바쳤으며, “아마도 이때부터 야마

아타헤의 막강한 권위를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

(7) 소가(蘇我) 집안과 야마토 아야(倭漢) 씨족

킬레이(1973)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세기 말경 쯤, 야마토의 농민들은 군사 계급의 지배를 받았으며, ” 베(部)라고 부르는 서비스 집단은 “황실 제도와, 대두하는 서비스 귀족 양쪽 모두를 위한 힘의 주된 근원이었다. . . . 케이타이(繼體) 조정에서 그토록 영향력이 컸었던 와니(壬仁)노 오미는, 긴메이(欽明) 정권이 확고히 기반이 잡혔을 무렵에는 이미 소가(蘇我)노 오오미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어 있었다. 그들은 옛 가쓰라키(葛城) 귀족의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 . . 그들은 왕국의 경제문제, 특히 한국인 서기들이 관계하고 있는 업무의 큰 부분을 담당했다. . . . 조정의 형성은 얼마전 까지 동등했던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신분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의미 했으며. . . 그 결과 정복자의 후손들 사이에 신분상의 평등성이 사라지고, 민족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 국가에는 새로운 종류의 거의 순수한 재정 담당 귀족 신분, 즉 소가(蘇我)가 포함 되었는데,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한 대리인들은 대부분이 한국인 서기들이었다.”²³

일본서기(NII: 154)는 스이코(推古, 재위 592 - 년)가, “나는 소가(蘇我) 집안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소가노] 오오미는 나의 외숙 이시다. 그러므로 오오미의 말이 밤에 떨어지면, 날이 새기 전에 [그것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9>} 일본서기(NII: 33과 40)에 의하면, 서기 570년에 죽은 소가노 이나메

토노 아타헤가 궁녀(우네메, 채녀)를 바치는 관습이 시작된 것 같다.”

²³일본서기(NII: 119-120)에 의하면,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는, 동쪽 지방들로 부터의 조세(調)를 바친다는 구실로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 코마(東漢直駒)를 들어 보냈으며, 서기 592년 이 코마가 천황(崇神)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東漢直) 이와이의 아들인 코마는, 천황의 측실이었던 [우마코노 스쿠네]의 딸 가와카미노 이라쓰메와 몰래 정을 통했으며,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다.^{<28>}

노 스쿠네(蘇我稻目)는, 센카(宣化) 치세인 서기 536년에 오오 오미(大臣)가 되었으며, 그의 딸 가운데 한명이 긴메이(欽明, 재위 540-571년)의 측실이 되었는데, 그녀의 맏아들이 요오메이(用明, 재위 586-587년)고, 넷째 여식이 스이코였다고 한다.^{<30>} 서기 593년에서 622년까지 통치한 쇼오토쿠(聖德) 태자는, 요메이의 둘째 아들이었다.²⁴

킬레이(KEJ: 8, 133)에 의하면, 6세기의 대부분, 재무부처는 소가(蘇我) 집안이 관리 했었으며, 그 직원들은 하타(秦) 집단과 야마토노 아야(倭漢) 집단에서 선출한 구라베(藏部)였다는 것이다. 킬레이는, 하타노 미야즈코(秦造)라는 수장이 통솔한 하타 집단과,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가 수장이었던 아야(漢) 집단이, “말로는 중국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한국[백제]에서 온 이주민이며, 고급 직물 생산을 포함해서, 조정의 급성장하는 경제 행정에 광범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NII: 192)는 서기 645년, 소가 이루카노 오미(蘇我入鹿臣)가, 후일의 텐지(天智)가 된 나카노 오오에(中大兄)와, 후일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로 이름을 바꾼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에게 살해 되었을때, “아야노 아타헤(漢直)는 일족을 집결시켰다. 저마다 갑주를 입고 손에 무기를 든 그들은, 오오 오미(大臣)를 돕기 위해 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31>} 카아터(KEJ: 7, 220)는 단순히, 소가 집안[우지]이 “한국 이민의 후손인 아야(漢) 집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고 과소평가해 말하고 있다.²⁵

²⁴킬레이(1973)는 지적하고 있다: 7세기 일본에서 “황후의 자리는 왕가의 친족만이 차지할 수 있었으며, 황후의 간택은 왕가의 친족 집단중에서 잠재적으로 적대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문의 지지를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 8세기 동안, 통치자의 제1 부인은. . . 남편이 사망한 뒤 얼마 동안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 있었다. . . 그런데 이 제1 부인이라는 위치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왕가의 친족이 독점해 왔었다.”

²⁵일본서기(NII: 190)는, “아야노 아타헤는 두 집안[다시 말하여 소가노 이루카노 오오 오미(蘇我入鹿大臣)와 소가노 오오 오미 에미시(蘇我大臣蝦夷)의 두 집안]을 전적

KEJ(1988: 7. 220-21)는 소가 집안의 기원에 대한 카아터의 견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 . 소가의 기원을 다케노우치(武内)노 수쿠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부학자들은 사료(NI: 306)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집안의 첫 구성원인 소가 만지(蘇賀滿智)가, 한국 백제국의 관리이자 외교 활동가이며, 한국의 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목나만치(木柙滿致)’라 부르고 있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믿는다.”²⁶ ⁽³³⁾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475년, 한성(漢城)이 고구려군에 정복당하기 직전에, 개로왕(蓋鹵王, 재위 455-475년)은 아들 문주(文周, 재위 475-477년)에게 “목협만치(木狹滿致)”와 함께 남쪽으로 도피하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한성에 남아 고구려군에 계속 대항해 싸우다가 전사했다.⁽³⁴⁾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소가노 만치(滿致)가, 닌토쿠(仁德)의 맏아들인 리츄우(履中) 치세때 등장한다.

일본서기(NI: 267-268)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전지왕(直支王)이 오오진(應神) 25년에 [서기 420년에] 타계했다. 따라서 그의 아들 구이신(久爾辛)이 즉위했다. 이 왕은 어렸다.

으로 섬겼다고 지적하고 있다.”⁽³²⁾

²⁶카아터는 계속한다: “4대에 걸쳐 야마토 조정의 오오 오미(大臣, 장관의 우두머리) 자리를 대대로 차지해 온, 소가(蘇我) 집안의 제1대인 소가노 이나메(蘇我稻日, 서기 570년 사망)는 한국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당시 전파된 불교에 제일 먼저 귀의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 . 우마코 (이나메의 아들 소가노 우마코, 蘇我馬子)의 신라에 대한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증오는, 국제 분쟁과 쓸데없는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 서기600년 한국 남동부에 파견된 원정군은, 우마코의 형 사카이 베노 오미 마리세(鏡部臣摩理勢)가 지휘했다.” 소가노 이루카(入鹿, 구라쯔쿠리, 鞍作)는 또 하야시타로(林太郎) 구라쯔쿠리(鞍作)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하야시(林) 씨족이 백제의 목귀(木賁) 씨족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진희(李進熙, 1982)와 일본서기(NI: 171) 참조.

그래서 목만치(木滿致)가 국사를 맡았다. 그는 왕의 어머니와 불의(正事)를 가졌으며, 그의 거동은 여러 가지로 올바르지 못했다. 천황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소환시키려 사람을 보냈다. 백제기(百濟記)는 말한다: ‘목만치(木滿致)는 목라근자(木羅斤資)가 신라를 침공했을 때, 신라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위대한 공적때문에 그는 임나(任那)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우리나라로 왔다가, 귀국(일본)으로 돌아갔다가 하면서, 천조(天朝)의 통제를 받았다. 그는 우리 국정을 장악했으며, 당시 그의 권력은 막중했다. 천황은 그의 횡포를 듣고 그를 소환했다.’” 백제기(百濟記)의 목만치는 삼국사기의 목나만치였거나, 그 목나만치와 어떤 형식으로 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또 일본서기의 소가노 만치(蘇我滿致)는 이 목만치였거나 또는 목나만치의 자손이었을 수도 있다.^{<33>}

아오키(青木, 1974: 72)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에서 권좌에 오른 소가 일족은. . . 이마키(今來, “새로 정착된”) 지역에 강력한 거점을 확립했으며, 자기들을 가쓰라키(葛城) 일족의 한 전설적인 인물과 연결시키면서 귀족 혈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조가 전설적인 인물이므로, 그들의 계보는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하다. 즉, 소가 집안은 이주민들 [속]에서 일어나 권좌에 올랐고, 귀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키더(KEJ: 3, 161-16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세기 중반 야마토 조정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지(氏)의 수장들은, 소가(세무 관리), 임베(隰部), 나카토미(中臣, 승려), 모노노베(物部, 직업 군인), 그리고 오오토모(大伴) 집안이었는데, 모두 야마토 평원에 영지(領地)를 가지고 있었다. 각 「우지」는 여러가지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황족 계통에게 딸을 부인으로 출가시키는 것이었다. 이 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황후(皇后)의 자리를 얻기도 했는데, 이렇게 딸을 황족에게 출가시키는 권리는, 오미(臣)인 소가에게만 있었으나, 나중에는 무라지(連)인 나카토미(中臣)와 모노노베(物部)에게도 그 특권이 확대되었다.”

(8) 벼(部)에서 율령제(律令制)로

이노우에(井上, 1977)에 의하면, “원시적인 도모노 미야코·도모·도모베(伴造·伴·伴部)는, 6세기와 7세기에 여러 도모(伴) 집단을 그 핵심으로한 선진 관료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후일에 도입된 율령(律令)관료 제도의 길을 터 놓았다”는 것이다. 이노우에에 의하면, 생산 수단의 기술 혁신[다시 말해서 백제 이민들에 의해 시작된 혁신]이 각 지방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로 일어난 지방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말미암아, 6세기에는 지방 수장들(구니노 미야즈코, 國造)을 지배하는 야마토 조정의 권력이 감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야마토 조정은 구니노 미야즈코가 다스리던 영지 안의 전략적인 지점에 황실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니노 미야즈코 아래에 있는 주민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7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우지-카바네와 도모(部) 제도가 일본식의 율령(律令) 제도로 변화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킬레이(KEJ: 8, 135)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지」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벼(部)와 도모(伴)는, 전기와 중기[다시 말해서 5세기 초에서 7세기 중엽까지] 동안, 야마토 조(朝)가 단순한 최고권력이란 존재로 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권으로 이행되어 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챙길 수 있는 주된 수단이었다. 일단 조정의 구조가 명확 해지고 또 지방의 자주적 통치권이 제거되자, 벼와 도모의 세습 권력이, 중앙 집권을 더 강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방식을 따른 관료적 중앙집권화에 여념이 없던 중앙 조정의 귀족들은, 서기 645년에 발생한 대화(大化) 쿠데타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그 후 대부분의 벼와 도모는 공민(公民)으로 전환되었고, 우지 명칭의 사용은 거의 보편화 되었다. 우지 자체는 공식적인 관료제도 아래서, 높은 계급을 가진 수장 밑에, 확대된 가족 집단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⁷

²⁷이노우에(井上, 1977)에 의하면, “텐지(天智, 재위 661-671년)때 확대 수정된 관위12계(冠位十二階) 제도는, 율령제(律令制)가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계급 제도를

소가 에미시(蘇我蝦夷)의 후계자가 쇼오토쿠(聖德) 태자의 아들을 살해했을 때,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 일파는 나카노 오오에(中大兄) 왕자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소가 일족을 일소해 버렸다. 나카토미의 개혁은, 서기 645년과 650년 기간중의 연호를 따서 다이카노 카이신(大化改新, 대변혁)이라고 부른다. 이 개혁은 나라의 행정 계통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씨족들이 다스려 온 모든 농민을, 토지 분배제도를 통해 황실의 직접 관리 아래 두었다. 하지만, 서기 664년에서 671년까지, 가족적으로 조직된 야마토 왜(大和倭)를 중국식 형법과 행정법 기초 위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율령(律令) 국가로 전환시키려고 한 텐지(天智)의 노력은, 흔히 서기 663년에 있었던 백촌강(白村江) 전투와 결부시켜 이해 하고 있다.

백제의 부흥 운동을 도와 주기 위해 파견된 왜군(倭軍)은 백촌강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의해 전멸되고, 그후 백제는 나당(羅唐) 연합군에게 정복되고 말았다.²⁸ 이노우에(1977)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이 율령 제도를 채용한 직접적인 동기는,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으로 조성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 때문 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크게 놀라서, 간신히 일본으로 건너 온 백제

모방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일본서기(NII: 127)에 의하면, 관위12계 제도는 스이코(推古) 치세인 서기 60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후 수정되었다가 결국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서기(NII: 128n) 참조.²⁹

²⁸400척의 배에 분승한 일본군은, 서기 663년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170척의 당군(唐軍)함대에 의해 전멸되었다. 프노다(1964: 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세기 [7세기]말께 일본에서는 위기가 조성되었다. 수(隋) [당(唐)] 아래 통일되어 팽창을 하고 있는 중국과, 신라 아래 통일 과정에 있던 [통일된] 한국이, 그당시 허약하고 지방 분권적인 일본을 마주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륙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 느낀 위협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과는 별도로, 떠오르는 중국과 한국의 왕조들이 성취한 우월한 업적을 본받고 싶은 욕망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마토 조정은. . . 중국의 우수한 문명, 특히 그 정치제도를. . . 채택함으로써. . . 자신의 힘을 강화 시키려 했다.” 연대가 좀 틀린데도 있고, 논의의 방향 설정도 잘못 되기는 했지만, 이 얘기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장군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 서쪽지방에 성을 쌓고 봉화 체계를 갖추는 등 방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배튼(1986)은 지적한다: “야마토 왜는 (서기 660년대에) 13세기의 몽골 침공, 또는 19세기에 페리 제독이 도착 했을때 일어난 사태에 견줄만한 강도의 외생적 위기에 직면했다. . . 이 시기에 일본 조정은 쓰시마(對馬島)에서 큐우슈우(九州) 북부, 다시 세토내해(瀬戸内海)를 거쳐 수도 지방으로 번어 올라간 방위선을 구축했다. 이들 요새의 구조는 당시 한국(백제)에서 알려져 있던 ‘산성(山城)’을 본뜬 것이 분명한데, 그 건설에서 한국 사람들(백제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 (NII: 283, 284, 286, 344 참조.)²⁹ <36>

이노우에(1986: 16)는 말한다; “한때 조정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텐무(天武)는, 서기 672년에 임신란(壬申亂)으로 알려진 반란을 일으켰으며, 강력한 씨족들을 조정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한 뒤, 천황의 자리에 오른다. . . 그는 천황의 지배를 강화하여, 후일 일본의

²⁹방위선을 요새화 하고자 했던 야마토 왜(大和倭)의 노력은, 속일본기(스넬렌 역주: 175, 176, 1871, 215, 272)에도 기록되어 있다: “서기 679년, “다자이후(太宰府, 큐우슈우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오노(小野), 기이(紀伊), 구쿠치의 성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기 698년에는, 텐지(天智) 5년에 축조된 “다카야스 성(高安城)이 수리되었다;” “다자이후는 미노와 이나쓰미의 성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 . 왕자들, 고관들, 그리고 국내 구니(國)들에게는, 전쟁에 대비하라는 천황의 명령이 잇달아 내려졌다;” “지방의 병사들은 10일간씩 전투 훈련을 받을 것이다. . . 병사들을 법 조문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그들은]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 하는 요새의 방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의 모든 구니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너무나 보잘것 없으니, 전투에서 이것들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지금 부터는 해마다 시제품 모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모형들은 엄격히 시험되어야 한다.” 서기 711년(전계서: 244)에는 다음과 같은 칙령이 내려졌다: “군인은 비상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 . 그러나 그들은 모두 허약하고, 전쟁기술을 배우지 않았으며, 이름[만의 군인일]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들을 군인으로 쓸수 있겠는가?”

율령제(律令制) 발전을 위해 확고한 기초를 닦았다. 형법과 행정법으로 구성된 일본 법령의 제정 작업이 그의 치세 동안 내내 계속되었으며, 서기 701년 마침내 그것이 다이호오 율령(大寶律令)으로 공포되었다.³⁰ 강력한 씨족들은 전통적인 특권이 박탈되었고, 그 대신 고위 관료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9) 베(部)와 야마토 왜(大和倭)

킬레이(1973)는, 야마토 왕국이 부족 국가(部族國家)가 아니었으며, 우지(氏)와 베(部)는 정치 조직 이었다는 쓰다(津田左右吉)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우지는 베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했던, 지배 씨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지의 수장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카바네(姓)는, 분명한 한국 어원(語源)을 드러내 보이며, 베는 직접 백제에서 빌려다 일본에 이식(移植)한 제도인 것이다. 베는 야마토 지배자에 대한 병참(兵站) 지원을 위해, 지배자의 전유물(專有物)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의미했다.

킬레이(1973)는, “베를 지배하는 행정 권력이, 바로 6세기와 7세기의 그 많은 우지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고 지적한다. 킬레이에 의하면, 쓰다(津田)의 가장 큰 공헌은, 베의 전유(專有)가, “일본 사회의 부족단계(야마토 이전 시대)에 존재했었을, 지방적 또는 혈연적 유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힌 그의 견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예가미(江上波夫)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4세기 말에, 종교적·의식적(儀式的) 부족장 제도에서,

³⁰다이호오 리쓰로(大寶律令)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토지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팔거나 남의 토지를 살 권리가 없었다. 이노우에(井上, 1968: 18)는 지적한다: 모든 남자 농민은 “지역 방위군(군단(軍團))에 복무한다음, 1년간 수도에서 궁정을 지키는 근위군(예지(衛士))에 복무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는 큐우슈우에 가서 3년간 국경 경비대(사키모리(防人))에 근무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노우에(1977)에 의하면 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대륙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 “천황조정은, 초기에 군사적인 중요성을 가졌던 그 율령(律令)제도를 유지해 보려는 열정이 식어 버렸다”는 것이다.

군사적 수장 제도로의 뚜렷한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설을 확인하는 것이다.³¹

킬레이(197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야케(屯倉)라고 부르는 특별 황실 토지의 출현과, 그 밖에 이것과 유사한 일련의 모든 토지 점유 형식은, 직능적인 귀족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세기가 바로 시작된 시기에도, 임금들은 한국 출신의 각종 장인들로 구성된 부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들 서기들이 토지를 개간하고 관리하는데 그들의 기능을 응용하기 시작했다. 야마토 왕들이, 중국 및 한국의 왕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장악한 것은, 왕실의 국내적 권위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출신 서기들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다. 이를테면, 왕실의 관리하에 있는 토지와 사람들 속에는, 한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사는 전체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기 539년] 케이타이-긴메이 양자간의 분쟁이 끝날 무렵에는, 왕실에 부속된 토지와 사람과 곡창 지대가, 당시. . . 왕의 자리를 넘볼수 있는 어떠한 개인적 후보가 독자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것 보다, 엄청나게 광대한 규모가 되어 있었다. 이들 토지 개산과, 그리고 그 관리자들은, 왕위의 계승에 새로운,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 .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의 민족적인 차이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야마토 이 직능적 귀족을 통해서 었을 것이다.”

(10) 결론

야마토 왜(大和倭)는 백제와의 대륙적 연관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족과 벼(部)의 조직은, 백제인과의 공통적인 문화적 유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야마토 왜의 창건자들은, 신세계(新世界)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오기 전에, 고구려 및 마한(馬韓)과의 전쟁을 했던, 백제 지배 씨족의 군사적 지도자였던

³¹킬레이(1973)는 “일본 역사책들의 군사 영웅적인 요소와, 5세기의 한 야마토 왕이 송(宋)나라 조정에 보냈다는 그 유명한 서한은, 당시 야마토 정부의 군사적 성격을 확인해 준다”고 말한다.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큐우슈우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 그곳은 이미 구세계(舊世界)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야마토 지방에서 신세계를 발견 할수 있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정복이 야마토 왜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야마토 왜의 발전은 백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의 형식을 모방한 직능별 조직은, 토착의 인력 뿐 아니라, 새로 도착한 이주민을 동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야마토 지배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³¹ 사실 히라노(平野邦雄, 1977)는 “일본의 통일 국가가, 5세기 말 [유우라쿠 시대]에, 베틀(部) 공동체 제도의 기초 위에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³¹왕(1980)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세기 초, 대륙의 기마 무사들 일족이 일본을 침공했다는 ‘기마 민족 정복’ 설을, 믿거나 말거나 간에, 4세기 이래 야마토 문화의 발전에 한국이 엄청나게 공헌했다는 주장을 뒷바침하는 증거는, 문서상으로는나 고고적으로나 풍부하게 있다.”